

하늘이 내린 큰 복

天賜
洪福

전염병 탈출기 | 파리 시민 3명의 전염병 실화 | 암에서 벗어난 직장 여장부

제 131기





독자에게 드리는 글: 이번호부터 《하늘이 내린 큰 복》의 섹션, 내용과 디자인에서 일부 조율이 있었습니다. 난세에 본 간행물에 실린 다양한 인생경험과 이야기가 여러분께 즐거움과 계발,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독자 스스로 평안과 행복의 길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하늘이 내린 큰 복(天賜洪福)》 편집부



목차

권두일문	3	선한 마음에 복(福)이 따른다
길성고조(吉星高照)	4	연쇄 추돌 사고에서 구사일생하다
	6	전염병 탈출기
	7	바이러스가 나를 비껴가다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8	직장에서 여장부가 반년만에 암에서 회복
	12	파리 코로나 감염자 3명 진심으로 진언 얽매 구원받다
세상을 이롭게 하다	16	대만에서 수만명이 법선에 올라 상서로움과 아름다움 체험
	22	온라인에서 파룬궁 배우기
		초조함이 적어지고 인내심이 많아지다
평안을 얻는 길	24	바이러스를 뿌려도 그들은 왜 감염되지 않았을까?
아는 것이 복	26	진심으로 속죄하자 파출소장의 위암이 완치되다
	29	극도의 부패 목격한 노당원 퇴당
향간여론	30	가정주부가 분신자살 거짓말을 간파하다



선한 마음에 복(福)이 따른다

글/ 안평(安平)

청나라 말 민국 시기 기인 위역(魏穢)은 서예에 뛰어나고 음률에 능했으며 내공이 있어 ‘정무서가(精武書家)’로 불렸다. 첫 과거시험에서 낙방했으나 위역은 한 가지 일에서 마음을 바꿔 3년 후 과거에 급제해 자신의 운명을 개변했다.

어려서부터 무예를 배운 위역은 십대 때 권술(拳術)로 유명했고 의협심이 남달랐다.

청(淸) 광서제 8년에 가을 시험 준비를 했다. 당시 관상을 잘 보는 광문(廣文)이 위역의 관상을 보고 과거급제는 희망이 없다며 뜻밖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알려줬다. 그해 가을 시험에서 위역은 정말로 낙방했다.

위역은 의기소침해져 정처 없이 방랑하며 술로 울적함을 달랬다. 치씨 성의 한 노부인은 이런 모습이 눈에 거슬려 누차 그의 험담을 했고 이에 위역은 매우 화가 났다.

어느 날 밤 위역은 화약을 들고 노부인 집에 찾아가 집을 불태우려 했다. 그러나 치씨부인 집주변이 모두 널빤지

로 지은 집인 것을 보게 된 위역은 탄식했다. “노부인은 비록 밍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옥석구분 없이 강그리 타버리게 할 수 없다.”

3년 후 광서제 11년 위역이 다시 과거 시험에 응시하면서 또 관상을 보는 광문과 만났다. 광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관상이 바뀌고 횡액도 제거돼 곧 과거 급제할 것입니다. 어떤 선행을 했는지요?”

위역은 마음을 돌려 가난한 집을 불태우지 않은 일을 광문에게 말했다. 광문이 듣고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 적잖은 생명이 다치지 않았기에 명(命)이 바뀌었구려.”라고 말했다.

그 해 위역은 과거에 급제했다. 그의 경험은 “사람 마음이 선(善)에서 출발하면 아직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길신(吉神)이 뒤따른다.”는 옛사람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선념(善念)과 악념(惡念)은 일념지차나 하늘과 땅 차이이며 신이 사람 마음을 본다는 말은 사실이다!





연쇄 추돌 사고에서 구사일생하다

10여 년 전 싸락눈이 내리던 밤에 나와 아이 그리고 어머니는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당했다. 심한 사고였고, 회사에 휴가 신청을 냈을 때 동료가 텔레비전에서 그 사고 뉴스를 보았지만 그게 내 차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다.

당시 여덟 살이던 아들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돼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 병원에 보내졌다. 한밤중에 사고처리 담당 경찰이 나를 수술실로 불러 수술 전 마지막으로 아들 모습을 보라고 의사가 전했다고 했다. 몇 명 의사가 밤에 불러나와 아이에게 긴급 수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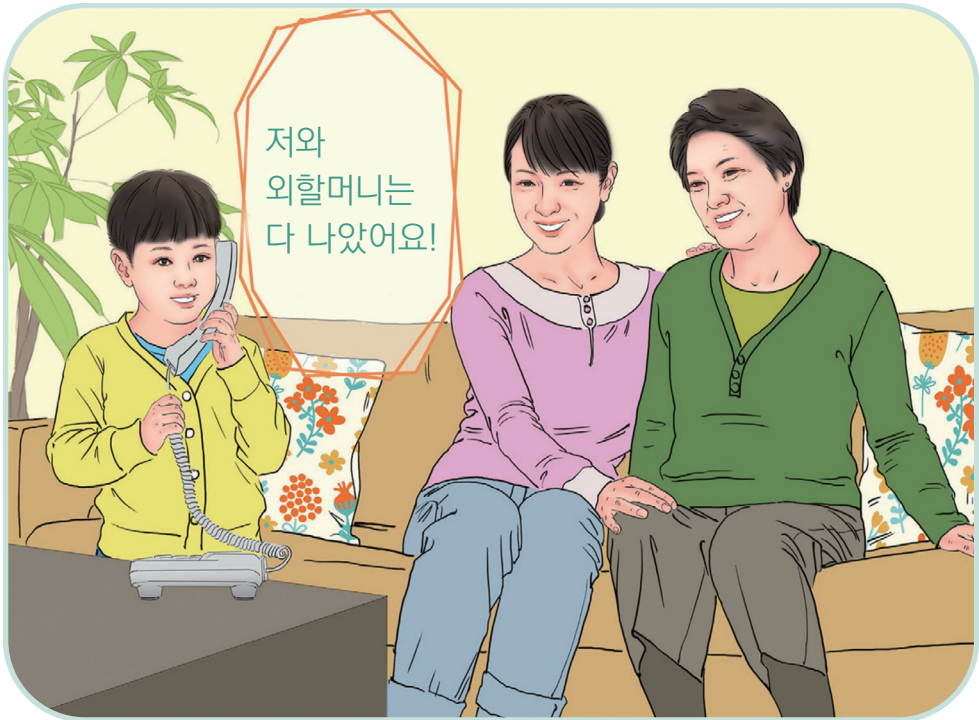
의사는 아들의 머리뼈가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져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조금 뒤 의사는 잘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머리 아래는 마비 될 수 있으며 눈도 날카로운 물건에 긁혀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당황하거나 울지도 않았다. 무상한 인생을 어찌 부모가 대성통곡을 한다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자인 나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아이를 구해주실 것을 간청 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들이 왔다. “정말 신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라며 아이의 머리뼈와 눈이 심하게 파열됐고 곳곳이 치명적인 상처여서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곳곳마다 머리 카락보다 더 가는 거리의 차이로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피부에만 상처가 났기에 피부 봉합만 하면 된다고 했다. 아이의 발 한 곳 뼈에 금이 가 김스했다.

의사로부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퇴원했다. 아들은 아주 빠르게 회복했고 현재 매우 건강하고 총명하다.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 현지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 특수



병실에 입원했다. 아들의 일을 처리하고 어머니를 보러 갔을 때 의사는 회복할 수 없다며 수술을 포기하려 했으나 안 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어머니의 상황은 복강 내 횡격막이 찢려 내장이 모두 과열돼 심한 출혈에 장기가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났다. 병원에서는 몇 개월 후에야 살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수련하신 적이 없으나 대법이 좋을 줄 알기에 계속 사부님께 보호해 달라고 간청 드렸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지 15일 만에

퇴원했다.

그리고 나는 한쪽 발에 가벼운 골절상을 입었으나 깁스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나왔다.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에서 구사일생한 이야기는 많은 대법제자들이 겪은 기적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한두 번까지는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기적은 우연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실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신적(神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佛), 도(道), 신(神)이 있다. 



전염병 탈출기



2020년 설전에 Z선생은 우한에 갔는데 도착해서 며칠 후 도시가 봉쇄당했다. 그는 방법을 강구해 주변도시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곳마저 봉쇄한다고 했다! 하여 목숨을 걸고 다른 성으로 도망쳤고 수많은 어려움을 거쳐서야 집에 돌아왔다.

Z는 집에 돌아왔어도 가족과 만나지 않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속으로 ‘14일 지나 괜찮으면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14일 되던 그날 갑자기 고열에 기침이 나면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등 ‘우한폐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얼마 안 돼 쓰러질 것 같았다. 그는 즉시 ‘120’에 전화로 2개 병원에 연락해 응급진료를 받으려 했으나 응급차를 파견할 수 없다는 상담을 받았다. 그는 절망을 느꼈다. 천신만고 끝에 전염병 지역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졌다며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니…….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는 전화로 7살 된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는 병으로 곧 죽을 것 같아…….”

Z의 아들과 아내, 장모는 모두 파룬궁

수련자다. 그들은 Z의 가까이에 갈 수 없었고 조급함과 걱정의 마음이 가득했으며 그에게 격려의 말을 보냈다.

아들은 끊임없이 아빠에게 전화로 알려드렸다. “아빠, 꼭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하세요! 꼭 하세요!” 그는 아들의 말에 수락하고 마음을 다해 9자진언(九字真言)을 염했다.

Z 가족 모두 힘든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가족은 그의 전화를 받았다. 고열 증상이 사라졌고 전신에 땀이 가득 났으며 지금은 매우 힘들어 일어날 수 없으나 별다른 증상이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가족은 모두 격동되는 심정이었고 아이의 외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Z선생은 몇 년 전 ‘전신성 흥반성낭창’에 걸려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시험 삼아 대법 서적 《전법륜(轉法輪)》을 읽었는데 결과 병이 나왔다. 하지만 무신론에 세뇌당해 대법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으며 자신이 앓던 흥반성낭창은 약을 먹어 나았고 심지어는 대법에 불경한 말을 했었다. 머리석자 위에는 신령이 있으며 사람의 일사일념에 대해 하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보고 있다.

이번 전염병이라는 겁난을 통해 Z는 대법(大法)이 다시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바이러스가 나를 비껴가다



[중국투고] 나는 은행 직원이며 현에 전염병 확산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은행 측에서 한 남자 동료와 함께 현 병원에 구조 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리는 현 병원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 사이 남자 동료에게 발열, 기침 증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는 현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며칠 만에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었다.

남자 동료는 나보다 젊고 건장했다. 상식적이라면 나같이 연약한 여자가 감염돼야 했다. 설령 그가 먼저 감염됐더라도 업무 관계로 밀접접촉자는 나왔으니 감염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14일간 자택격리 후 핵산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사장님이나 동료 모두 내가 명줄이 길다고 했다.

나는 과분파파 사부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대법 수련 26년으로 가족 모두 대법을 믿고 진상(真相) 호신부(护身符)도 일 년 내내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겁난에서 안전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 여장부가 반년만에 암에서 회복

글/ 샤오옌(萧妍)

친척 중에 여장부 화(桦, 가명)는 여러 나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40~50세의 그녀는 업계에서 젊고 유망하고 재능이 넘쳤으며 사업의 상승기에 처했다.

갑자기 전신이 셋노랳게 변하다

그녀는 늘 아주 건강해 수년 동안 담석 외에는 중병에 걸리거나 입원한 적이 없었고 가끔 가벼운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고 견디면 곧 지나갔다.

2021년 갑자기 불과 며칠 만에 몸 전체가 셋노랳게 변하고 눈 흰자위까지 노랳게 변한 데다 등 윗부분의 극심한 통증으로 서거나 걷지 못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등의 통증을 감기나 신경통으로 여기고 몸 전체가 누렇게 변한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독학으로 중의학을 조금 배워 몸 전체가 노랳게 변한 것이 쓸개의 문제일 수 있으며 내시경 시술로 쓸개를 제거하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녀는 비교적 잘 알려진 큰 병원에 검사하러 갔다. 그러나 검사 결과 놀랍게도 담석이 아주 심각했다. 몸 전체가 노랳게 된 것은 담낭에 가득 찬 결석이 담즙의 통로를 막아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서였다.

또 담관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견됐는데 초기 판단으로는 종양으로 보였고 악성이든 양성이든 수술로 제거한 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태가 아주 심각해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

평소 아주 유능했던 사람이 단 일주일만에 침대에 누워 기본적인 생활조차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체중이 급속히 빠져 원래 몸집이 아주 컸던 사람이 겨우 50kg이 됐다.

정말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풍운이 있고, 인생의 화복(禍福)은 헤아릴 수 없다.”는 옛말과 같았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치료를 계속하면서 다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수술 중에 사고가 날까 봐 수술 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유언장을

써서 뒷일을 자세히 당부했다.

암 말기 진단을 받다

나는 그녀에게 주변의 많은 친구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九字真言)을 외워 건강을 회복하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파룬따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 몇 년 전 삼퇴(중공의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에 동의했으나 대법 수련에 들어오지 않았다. 절체절명에 처한 지금에 그녀는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주의 깊게 듣고 즉시 9자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묵념했다. 그러자 정서가 점점 가라앉았고 더는 그렇게 비관하지 않았다.

수술이 끝날 때쯤 의사가 가족 대기실에 와서는 적출한 결석과 절제한 병변 부위를 내게 보여주었는데 결석이 수북했다. 그는 또 내게 적출한 미확인 물체는 종양이라고 했다. 며칠 후 병리 분석 보고서가 나와 악성 종양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등의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경추를 검사한 결과 암이 경추로 전이되어 분쇄성 골절이 일어나 등 윗부분에 통증이 발생한 것이었고 암 말기였



다. 동시에 폐에도 암의 전이 징후가 발견돼 추가 검사가 필요했다.

그녀의 온몸이 노랗게 변한 후 뼈 전이 말기 암 확진을 받고 반신불수가 되어 누울 때까지는 겨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일은 가족에게 정말 청천벽력이었다!

의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술 상처가 회복된 후에 화학치료부터 하고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가 경추 후속 치료 이야기를 하자 의사는 다만 이런 암의 악성도가 매우 높아 남은 수명이 6개월이라며 경추는 더 치료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가족들은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검사 결과를 들고 수많은 유명 종양 전문 병원으로 뛰어다녔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같았다. 각 병원의 모든 의사는 그녀와 같은 상황에서 6개월을 버티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경추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각 병원의 의사들은 이미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대법을 배우고

마음을 다해 진언을 염하다

나는 그녀에게 파룬따파 수련자 중에는 대법 수련 후에 암에서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많으니 지금 유일한 희망은 진정하게 대법 수련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수련해서는 안 되며 그건 구하기 위해 범공부하는 것으로 안 된다고 말해주었다. 책을 읽고 범공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며 암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으면 하루 범공부한다는 자세로 배우면 된다고 했다.

그녀는 내 말을 이해하고 파룬따파 수련의 길로 들어오겠다고 했다. 그녀가 전신이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있고 손에 힘이 없어 범공부할 수 없었으므로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려주고 매일 밤 사부님의 저서인 《전법륜(转法轮)》을 읽어주었다.

그 기간에 그녀는 암의 통증이 아주 가벼웠지만 아플 때는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염했다. 그녀는 사부님께서 신체를 정화해주는 것을 정말로 느꼈다. 업력이 등에서 손에서 배출되어 나가면 즉시 아프지 않았다고 했다. 아

주 극심한 통증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고통은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사부님께 도움을 청하니 잠시 후 지나갔다고 했다.

의사의 뜻에 따라 화학치료가 시작됐다. 화학치료는 몸을 몹시 상하게 했다. 그녀는 첫 번째 치료 후 기력이 모두 소진됐고, 두 번째, 세 번째 치료 후에는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전법륜》을 읽고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는 것을 견지했다. 점점 몸도 호전됐고 화학치료로 인한 탈모 외에는 메스꺼움, 구토 등의 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통증도 없었다.

기적적인 건강 회복에

의사가 경탄하다


재검사하니 그녀의 회복 상태가 아주 좋으며 모든 암 지표가 증가하지 않고 급격히 감소해 곧 정상인의 지표 수준에 인접했다. 의사는 몹시 놀라워하면서 불가사의하다고 했다!

의사들은 모두 현재 간담의 암에 대한 약물의 효과가 사실상 매우 좋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다니 이 건 기적이라고 했다! 의사는 이제 경추의 후속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희망이 생겼다!

경추 치료는 손상된 경추 뼈를 제거하고 지지대를 넣어야 했다. 이 또한 대수술이었다. 수술을 앞두고 모두 몹시 긴장했으나 그녀는 오히려 아주 침착했다.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염한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6시간을 넘긴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일체가 정상이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 후 거의 한 달 동안 범공부를 견지하자 아주 잘 회복되

어 더는 목 보호대 없이 완전히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의 각종 검사에서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고 폐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가 병에 걸린 후 건강을 되찾기까지 겨우 반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반년 동안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과정을 겪었으며 스스로 저승길을 한 바퀴 돌고 왔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렸다! 



파리 코로나 감염자 3명 진심으로 진언을 염해 구원받다

글/ 명후이 기자 더룡(德龍) 프랑스 파리 보도

베트남계 투이 안(Thuy Anh)은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다. 2020년 봄 신종 코로나가 파리에서 확산할 때 그의 고모와 세입자, 그리고 삼촌 친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투이 안은 파룬궁을 수련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래는 투이 안이 기자에게 이 세 사람이 성심으로 '9자진언'을 염해 구원된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혼수상태에 빠진 고모가 위험에서 벗어나다

제일 먼저 회복된 사람은 고모 응우엔 티 홍 응옥(Nguyen Thi Hong Ngoc)이다.

2020년 3월 말 어느 날 프랑스와 베트남에 사는 우리 가족은 애타게 전화를 걸어 고모의 안부를 물었다. 파리에 사는 78세 고모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받았으며 일주일 넘게 고열에 시달린 고모는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입원했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고모의 병간

호를 하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리홍쯔 사부님(파룬궁 창시자)의 설법 녹음을 보내 고모에게 들려드리라고 했다. 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이 9자진언을 읽어드리라고 했다. 사촌 동생에게 이것이 고모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촌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으나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고모에게 직접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라 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데다가 고모가 또 혼수상태이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기로 결심한 나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다. 전화 연결이 되자 의식을 조금 회복한 고모가 뜻밖에도 전화를 받으셨다.

나는 큰 소리로 알려드렸다.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소리 내 읽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부님 설법을 들으면서 편히 쉬세요." 전화에



2020년 봄 파리가 전염병 상황이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였다. 사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경찰이 기차역 입구에서 통근하는 사람을 한 명씩 검사하고 있다.

서 고모의 가냘픈 “응” 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튿날 오전 고모의 신종 코로나 증상이 사라졌다. 고모는 뜻밖에도 내게 전화를 걸어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모는 “예전에 너희들이 《전법륜(转法轮)》을 보라고 계속 권했으나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꼭 보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며칠 후 고모는 퇴원했다.

고모는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으며 격리가 끝나면 단체 연공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진언을 소리 내 읽고 빠르게 회복하다

두 번째는 우리 집 세입자 응우엔 통(Nguyen Tong)이다.

2020년 4월 어느 날 세입자 응우엔 통 씨가 허약한 소리로 전화를 걸어 욕실 벽에 난 구멍을 막아달라고 했다. 그는 거기서 찬 공기가 들어와서 병이 났다고 했다.

바로 그에게 달려가 보니, 그 구멍은 통풍 환기구로 밖에는 바람막이 날개가 있어 이 구멍 때문에 병들 수 없었다.

침실에 들어가 보니 응우엔 통은 침대

에 누워있었다. 양털모자에 이불을 덮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마치 곰 인형 같았다.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열이 나자 난방을 최대까지 올려 침실이 찜통 같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추위에 떨며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몸이 허약함을 느껴 응급 전화를 걸어 구조대가 왔으며 그들이 주는 해열제를 먹었으나 열은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열이 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를 돌보면서 나의 수련 이야기를 들려줬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을 때 새해를 맞아 베트남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몰라보시면서 짚어보이고 예뻐졌다고 했어요.”

오후 5시에 나는 그의 집에서 나왔다. 떠나기 전 그에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적어주면서 나아질 수 있으니 계속 염하라고 당부했다.

이튿날 점심, 나는 프랑스어 《전법륜》을 들고 다시 응우엔 통의 집에 갔다. 침실에 들어가니 방안의 온도가 덥지 않았다. 차분하게 침대에 누워 이불 하나

는 한쪽에 제쳐놓고 다른 하나로 가슴에 덮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아 생수와 음식을 사 왔다고 했다.

나는 매우 놀라며 “정말이에요? 어제 오후에 그 추워서 떨던 ‘곰 인형’이 맞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밤새 내가 적어준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소리 내 읽었고 이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약간의 각혈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로 확진됐다!

나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소리 내 읽으라고 했다!

응우엔 통의 몸은 점점 좋아졌다. 병원에 입원한 이튿날 신종 코로나 증상이 다 사라져 더는 열도 나지 않고 각혈도 하지 않았다. 이틀 후 그는 전화로 내게 퇴원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도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으며 격리가 풀리면 나에게서 파룬궁 다섯 가지 공법을 배울 준비를 했다.

삼촌이 친구에게 진언을 선물하다

세 번째 사람은 삼촌의 친구 응우엔 투 타이(Nguyen Tu Thai) 씨다.


그는 밤새 내가 적어준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法輪大法好 真善忍好)’를 소리 내 읽더니 이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우리 대가족 중에 20여 명이 파룬궁을 수련한다. 평소 우리는 수련하지 않은 가족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특히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 이 9자진언이 생명을 구하고 평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올해 79세인 삼촌도 이 9자진언을 알고 있다.

2020년 4월 파리의 전염병 확산은 매우 심했다. 어느 날 삼촌이 전화를 걸어 후두암에 걸린 친구 응우옌 투 타이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삼촌은 친구를 살리고 싶다며 9자진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다.

일찍 9자진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삼촌이 다시 한번 부탁한 이유는 파룬따파 제자의 입으로 말한 아홉 글자에 자비로운 장과 에너지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삼촌에게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읽어드렸다! 그리고 삼촌에게 성심성의껏 읽으면 효과가 있음을 그 친구에게 알려드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응우옌 투 타이 씨가 삼촌에게 전화로 많이 나왔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틀 뒤 응우옌 투 타이 씨 신종 코로나 증상이 사라지자 병원은 그의 귀가를 허락했다. 



투이 안 씨가 파룬따파 제2장 공법 ‘法輪桩法(파룬장파)’를 연마하고 있다.



대만 파룬궁 수련생이 제작한 대형 법선(法船) 등불이 밤빛 속에서 눈부신 금빛을 발했다. 6층 높이의 법선은 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대만에서 수만명이 법선에 올라 상서로움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다

글/ 명후이 기자 쑤보(孙柏)·쑤룽(苏蓉) 대만 가오슝 보도





좌측 사진: 신구천차(神駒天車) 등불. 우측 사진: ‘파룬궁 다섯 가지 공법’ 등불.
아래 사진: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대형 ‘법선’ 등불이 가오슝(高雄) 강산(岡山)공원에 전시됐다. 천국악단과 요고대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가 더해졌고 수만명 민중이 참여해 법선에 올라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선(善)한 염원을 발하는 전통 풍습을 즐겼다.

2022년 대만 대보름 등불 축제가 가오슝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대만 파룬따파 학회는 거대한 행사를 돕기 위해 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층 높이의 대형 ‘법선’ 등불을 제작했다. 제작된 등불

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가오슝 강산 공원에 1개월간 전시됐다.

아직 방역조치 제한이 있으나 민중들의 흥은 여전했으며 가족끼리 등불축제를 즐겼다. 축제기간 매일 밤 6시부터 9

시까지 정각에 광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법선 등불이 밑에서 위로 켜졌다. 많은 공무원, 사업주, 유명 지역 인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법선에 올라 전통적인 등불 예술의 문화 내포를 체험하면서 하늘이 평안과 복을 내려줄 것을 기원했다.

주말이 포함된 축제의 마지막 3일간 대만 전염병 형세도 누그러들어 수만명 민중이 잇따라 찾아왔다. 파룬따파 마칭밴드 천국악단과 요고대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입법위원 린다이화(林岱樺)가 말했다. “법선 등불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이념이 펼쳐져 반짝반짝 빛났는데 아주 특색있습니다. 게다가 천국악단의 진감하는 우렁찬 연주와 친근한 요고대의 표현으로 이곳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했습니다.”

‘법선’이 대만 등불 축제에 전시된 것은 올해로 13년째로 디자이너 장이중(庄逸中)이 설명했다. “법선 완성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배 밑바닥의 12개 큰 연꽃 화판이 돛에 달린 9개 파룬을 부각시켰습니다. 파룬은 시계 방향으로 아홉 번, 반 시계 방향으로 아홉 번 회전합니다. 세 개 돛대 진선인(真·善·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밤빛 속에서

더욱 금빛찬란합니다. 법선 옆에 ‘신구 천차’, ‘파룬궁 다섯 가지 공법’ 2개 등불이 설치됐습니다. 24시간 의무(义务)로 연공을 가르쳐 민중들이 파룬궁을 진일보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시립연합병원 장홍타이(張宏泰) 전 원장이 말했다. “파룬따파 법선 등불이 매우 웅장합니다. 돛에 있는 9개 파룬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빛과 즐거움을 발산해 평화롭고 상서로운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그는 법선에 오르니 그 경지가 느껴지면서 더욱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法輪大法好 真善忍好)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에는 수십만명이 파룬따파 수련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교수, 의사, 기업가, 변호사, 판사 등 사회 엘리트가 적잖다. 1천여 개 연공점이 전국에 분포돼 파룬궁의 고요하고 상화로운 아침 연공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대만 파룬궁 수련생은 매년 5천명에서 6천명 규모의 파룬따파 수련 심득교류회를 개최하며 대형 인각활동도 진행한다.

같은 한부의 법을 수련하고 같은 《전법륜》 책을 배우지만, 대만 파룬궁 수련생과 중국 파룬궁 수련생이 처한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로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한다.



해변에서 연공(炼功)하고 있는 캐나다 파룬따파 수련생들.





온라인에서 파룬궁 배우기 초조함이 적어지고 인내심이 많아지다

글/ 타오쯔(桃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로 사람들은 면역증진과 심신건강에 좋은 방법을 갈구하고 있다. 바로 이때 파룬궁(法輪功) 공법을 무료로 온라인에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최소 2만여 명이 온라인 공법 학습반에 참여했다.

신 수련생들은 보편적으로 파룬궁을 연마할 때 강한 에너지가 체내에서 흐르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동시에 불안이 줄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대인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다. 일본 신 수련생 우에다는 “파룬궁을 배운 후 화를 잘 내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알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우에다는 온라인 9일학습반을 마친 후 연공을 꾸준히 하며 파룬궁 서적을 읽었다. 그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인내심도 생겨 아내와 다투는 횟수가 예전의 절반도 안 된다고 했다.

다른 일본 신 수련생 센카 여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더는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를 알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직장암 4기 환자였던 레나킬라(Lanakila W)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했다. 연공 석 달 뒤 재검사에서 용종이 없어지고 수술로 생긴 흉터도 다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중국인 탕우쿵(唐悟空, 닉네임)이 ‘인터넷 봉쇄돌파’로 온라인에서 공법을 가르치는 중국어 학습반에 참여했다. 그는 연공 후 온몸이 뜨거워났으며 “학습반 분위기가 정말 좋아 떠나기 아쉬웠다”고 말했다.

리사 오사닉(Lisa Osanic)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Kingston) 시의원이다. 그녀는 “온라인 학습반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날 밤 단잠을 잤어요……. 더 많은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연공 동작을 배움과 아울러 이런 동작을 기억해야겠어요.”라고 말했다.



제1장 공법
佛展千手法
(포잔첸서우파)



제2장 공법
法輪桩法
(파룬장파)



제3장 공법
貫通兩極法
(관통량지파)



제4장 공법
法輪周天法
(파룬저우토펜파)



제5장 공법
神通加持法
(선통차츄파)

파룬궁 다섯 가지 공법 스케치 약도


리사 의원은 캐나다 파룬따파 불학회에 보낸 편지에서 전염병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의 정신적, 도덕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온라인 파룬따파 학습반을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은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룬궁 온라인 학습반에서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인도어, 히브리어, 스웨덴어 등 20여 개 언어로 공법을 가르치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중국 현지의 민중은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봉쇄돌파 방법은 뒤표

지 참조)

<https://LearnFalunGong.com>

파룬따파(法輪大法)는 파룬궁(法輪功)이라고도 부르는 성명쌍수(性命雙修)의 불가 수련 대법으로 우주의 진선인(真·善·忍)의 특성에 따라 수련을 지도한다. 파룬궁 수련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며 도덕을 향상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 박해 전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표본조사를 한 결과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율은 98%에 달했다. 현재 전 세계 백여 개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파룬따파는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 5천4백여 가지의 표창문을 받았다. 



바이러스를 뿌려도 그들은 왜 감염되지 않았을까

글/ 루즈(茹之)·샤오웨이(晓觉)

신종 코로나 전염성은 매우 강하지만, 일부 밀접 접촉자는 아무렇지도 않다. 올해 2월 초 영국에서 발표한 실험결과로는 더욱 놀랍다. 직접 바이러스를 뿌렸으나 일부 사람은 감염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중국 고대 사람들이 말하는 ‘역병에 눈이 있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적 바이러스 감염 실험

36명이 영국에서 진행된 ‘인체도전실험’에 자원했고 피험자의 코에 같은 양의 신종 코로나를 뿌렸다.

피험자 절반에게서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위력을 발휘해 42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나 검사에서 양성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18명 피험자는 직접 바이러스를 뿌렸는데도 감염되지 않았다.

왜 백신을 맞은 적도 감염된 적도 없는데 신종 코로나에 저항력이 있을까? 연구자는 이것이 미래 연구에서 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상 역병에서 생존한 사람들

어쩌면 이들의 연구 시작은 역사 속 역병 생존자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원 541년에 폭발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에서 2500만 명이 사망했다. 사서에 감염자들 사이에 거주하며 감염자는 물론 사망자와도 접촉했으나 전혀 감염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아이와 가족을 모두 잃었기에 스스로 사망자를 포옹했으나 여전히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다고 기술돼 있다.

중국 고서에도 적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전염병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예를 들어 송나라 대신 관사인(管师仁)이 어느 해 초하루 아침 일찍 문을 나섰다. 갑자기 몇몇 거대한 여귀(厉鬼)를 만났다. 관사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묻자 귀신이 말했다. “우리는 역귀(疫鬼 역병을 퍼뜨리는 귀신)로 새해 첫날을 맞아 인간 세상에 온역을 퍼뜨리러 왔다.”고 했다.

관사인이 “우리 집에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역귀는 “없다”고 말했다.

관사인이 그 이유를 묻자 역귀가 조상 3대가 덕을 쌓고 악행을 멈춰 선을 행하면 그 집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연 그해 온역이 유행할 때 일가족이 다 무사했다. 관사인은 현명한 신하로 복건성과 절강성에서 임직하는 기간 백성에게 이로운 정책을 널리 펼쳐 사람들은 그 덕을 떠받들어 생사당을 세웠다.

신에게 참회하면 온역이 사라진다

동한(东汉) 말년에 역병이 유행했다. 도교(道教) 3대 조사의 하나로 꼽히는 장도릉(张道陵)이 역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생 저지른 잘못을 모두 기억해 하나하나 글로 써서 물에 던지게 했다. 동시에 신명(神明)을 향해 더는 그런 잘못과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만약 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의 생명이 끝나도 좋다고 맹세하도록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앞을 다뒹 그의 말대로 했고 한 명이 열 명에게, 열 명이 백 명에게 전파하면서 역병이 사라졌다. 장도릉과 그의 후손 및 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만 명의 역병을 치료했다.

“머리 석 자 위에 신령이 있다”는 말이 있다. 즉,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할 때

면 신령은 이를 볼 수 있고 사람 몸의 사기(邪气)와 배후에 있는 여귀(厉鬼)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 몸의 바이러스는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병이 낫게 된다.

역병을 피하는 비결:

마음을 다해 9자진언을 염하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비해 밉후이왕은 수많은 환자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여 깨끗이 나은 진실한 사례를 보도했다.

예를 들어 우한에 사는 80세 리(李) 노인은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이미 폐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친지들이 그의 상황을 알고는 그에게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염해보라고 알려주었다. 7일 후 노인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퇴원했으며 후유증도 없었다.

‘정기(正气)가 안에 있으면 사악한 것이 침범할 수 없다.’ 파룬따파는 불가의 고덕대법(高德大法)으로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구자진언을 묵념하면 우주 바른 신(正神)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바른 에너지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철저히 해체할 수 있다.



진심으로 속죄하자 파출소장의 위암이 완치되다

글/ 장밍(张明)

한 파출소장이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밤에 사무실로 뛰어가 예전에 몰수했던 파룬궁(法輪功) 진상 자료를 몰래 집으로 가져다 보았다.

2006년 우리 지역 동청(东城)파출소에 37세인 C가 새 소장으로 전근해 왔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로 이 파출소에서 세 번째 소장이다.

승진만 바라다 위암에 걸리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세 개의 햇불처럼 기세등등하다’는 말이 있다. C소장은 어디 세 개의 불 뿐이겠는가. 그야말로 매일 불을 태우듯 했다. 파룬궁과 관련된 일이라면 놓치지 않고 자신이 앞장섰다.

부임한 첫날부터 진상 자료를 나눠주던 파룬궁 수련생 한 명을 붙잡아 구류소로 보냈다. 구류소에서 받지 않자 C는 하루 내내 처리해 억지로 이 수련생을 구류소에 보냈다. 이튿날에는 학교 입구에서 진상을 알리던 할머니 한 분을 간수소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관할구역의 파룬궁 수련생을 상대로 미행, 감시, 불

법 벌금 등도 가했다.

전체 직원들은 다망하게 일하게 돼 밑에서 원망의 소리가 자자했으나 겉으로는 누구나 감히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시국(市局)에서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시국은 수년간 동청 파출소가 파룬궁 문제 처리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역량으로 국면을 바꾸려 했다.

이렇게 반년이 지나서 C소장은 파룬궁을 탄압한 ‘선진 수상대회’에서 표창 받고 붉은 꽃도 달았다. 그런데 그가 득의만면하여 승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위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으랴. 이로써 초죽음을 당한 그는 절망에 빠졌다.

행동으로 영혼이 지은 죄를 씻다

C소장은 문득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선과 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입니다.”, “대법을 박해하는 것

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내가 정말로 악보(惡報)를 받은 것인가? 그는 밤에 파출소로 뛰어가 예전에 몰수했던 파룬궁 서적, CD, 소책자를 남몰래 집으로 가져가서 진지하게 일독했다.

읽을수록 파룬궁 사부님의 말씀이 옳고 이치가 있다고 느꼈고, 파룬궁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마음에서 파룬궁을 박해했던 일들이 후회됐다…….

수술 일정을 기다리는 동안 C소장은 시간만 있으면 파룬궁 진상이 담긴 CD를 보고 파룬궁 수련생을 찾아 일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물었다. 이때 그는 ‘파룬따파가 불법(佛法)’임을 진심으로 믿게 됐고 ‘선과 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하늘의 이치’임을 더욱 믿게 됐다. 그는 행동으로 영혼이 지은 죄를 씻으려 했다.

파출소 직원들은 C소장의 변화를 보았다. C소장은 파룬궁에 관한 신고가 들어와도 못 들은 체하고 누군가 전화를 걸어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으려고 경찰차를 파견하려 하면 그는 “어디에 차가 있어요? 헛수고하지 말고 풀어줘요.”라고 말했다.

그는 관할구역에서 불법(非法)으로 벌금을 부과한 파룬궁 수련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했



다. 그는 또 인맥을 통해 불법으로 노동 교양 결정을 당한 노년 파룬궁 수련생을 ‘보석 치료’ 방식을 통해 자택으로 돌려보내는 등 유사한 일을 적지 않게 했다.

“진상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 늦지 않아 다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C소장은 참기 힘들던 위의 통증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온몸에 힘이 생겼으며 무엇을 먹어도 맛있었다.

병원에서 검사하니 아니, 위암이 글썽 완쾌되었다! 그는 너무 기뻐다. 그는 동

료 탕(唐) 씨에게 위암이 나온 경과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탕 씨는 “앞선 두 소장이 왜 파룬궁 박해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아십니까?”라고 묻자 그는 머리를 저으며 왜냐고 물었다.

탕 씨는 “초임 소장의 어머니와 형수는 모두 파룬궁 수련생입니다. 그분은 항상 직원들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이라며 파룬궁을 수련하면 국가가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도 ‘직장을 잃더라도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했어요. 하하, 이상한

것은 파룬궁을 괴롭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 소장이 나중에 오히려 성청(省厅)으로 승진했어요.”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부임하신 진(秦) 씨 소장은 업무 능력이 굉장했어요. 전근해 왔을 때 거의 퇴직 나이에 가까웠는데 시국은 그의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 억척스러움을 이용해 파룬궁을 박해하

려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파룬궁 박해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는 ‘머리 석 자(尺) 위에 신령이 있다.’며 아들과 손자를 위해 덕을 쌓아야 한다고 했어요. 일 년 후에 인맥을 통해 명예 퇴직 했는데 퇴직금이 일할 때보다 많아 사람들은 그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아들, 며느리가 모두 파룬궁 수련생이었고 아들, 며

느리가 조기 퇴직을 권한 것이었어요.”

C소장은 듣고서 끊임없이 감탄했다. “아이구, 다들 진상을 명백히 알고 복을 얻었군! 다행히 나도 늦지는 않아서 암이 나왔지,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 거야!”

밍후이왕의 비공

식 통계에 따르면,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래 적어도 2만여 명이 악보를 당했다고 한다.

악보로 사망한 사례 중에서 공안 계통 인원이 제일 많다. 그러나 일부 사람은 불치병이나 고질병에 걸리자 이를 누우치고 더는 박해에 가담하지 않고 전력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도와 죄를 만회해 결국 복을 받았다.

“아이구, 다들 진상을 명백히 알고 복을 얻었군! 다행히 나도 늦지는 않아서 암이 나왔지,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 거야!”



극도의 부패 목격한 노당원 퇴당

[중국투고] 올해 1월 27일 간부로 보이는 노인과 만났다. 그의 모습은 선했고 나는 그에게 삼퇴(공산당 3대조직에서 탈퇴)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일을 알려드렸다.


그는 노당원이라며 “오래전부터 당비를 내지 않아 자동 탈당되거나 다름없어요.”라고 해서, 나는 말했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아저씨께서 입당할 때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는데 그건 독한 맹세입니다. 신과 부처에게 탈퇴하겠다고 성명해야 독한 맹세를 깨끗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한 분자로 남습니다. 하늘이 그것을 청산할 때 그것을 따라 손해 본다면 얼마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아저씨를 도와 대기원에 삼퇴 성명을 해드릴게요. 탈퇴하면 평안을 얻고 전염병과 멀어집니다. 실명, 가명 모두 됩니다. 신과 부처는 사람 마음을 보며 진심으로 탈퇴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비를 내지 않으면 탈퇴되는 줄 알았어요. 탈퇴를 도와주세요.” 나는 가명으로 당에서 탈퇴해줬다.

노인은 “몇 년 전 당신들이 ‘하늘이 중공을 멸하니 탈당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미신을 선전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정말이었어요. 지금 하늘이 멸하는 전염병이 정말로 발생했네요.”라면서 긴 한숨을 내뿔었다. “휴, 중국이 끝장났어요. 공산당도 끝장났어요.” 나는 그에게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지 물었다.

그가 말했다.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이 40만 위안을 달라고 하네요. 하는 수없이 옛 친구를 찾아 도움을 청해 2만 위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봐요, 공산당 부패가 어떤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으려 해도 이런 방식이라니.”

“공산당은 끝장났어요.” 노인이 연거푸 말했다. 이 말은 모두 진실하다. 그러나 공산당이 끝장난다고 해서 중국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역사상 수십 번의 조대가 바뀌는 일을 겪었고 매번 부패한 왕조가 도태된 후 중국에는 새로운 국가와 민족이 나타났다. 

어떻게 삼퇴(三退)하는가?

1. 해외 전자 우편함에 삼퇴 성명 전송: tuidang@epochtimes.com
2. 봉쇄돌파 프로그램으로 탈당 사이트 접속, 성명: tuidang.epochtimes.com
3. 전 세계 탈당 센터:
전화: 001-416-361-9895 또는
팩스: 001-201-625-6301



가정주부가 분신자살 거짓말을 간파하다

[중국투고] 어느 날 산책하다가 노부인 네 명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중공의 거짓말을 곧이듣고 파룬궁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나는 그들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보았다.

내가 물었다: “아주머님들 집에서 밥 짓고 요리하시나요?”

그들이 답했다: “반평생을 했어요.”

내가 물었다: “팔과 손을 데이거나 화상을 입은 적이 있죠?”

그들이 답했다: “흔히 있는 일이죠.”

내가 물었다: “아프셨나요?”

그들이 답했다: “많이 아파요. 찬물로 씻고 식초를 발라도 아파요.”

내가 물었다: “모두 텔레비전에 방영된 헨안먼 ‘분신자살’을 보셨을 텐데, 그 몸이 타서 엉망진창이 된 사람은 어째서 아파하지 않을까요? 그는 아파서 땅바닥에서 뒹굴어야 했어요.”

그들은 뭔가 깨달은 듯이 말했다: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그들이 물었다: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그들에게 알렸다: “그건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배우가 연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문화대혁명을

겪으셨을 텐데 그것은 원한을 부추기며 모두가 사람을 다스리는 운동에 가담하게 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문화대혁명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어서 내가 하나하나의 의문점을 분석해주자 그들은 모두 알아들었다.

파룬궁은 명확하게 살생을 금지한다

파룬궁 서적에서 연공인은 살생을 할 수 없으며 살생과 자살은 모두 유죄라고 명시돼 있다.

모든 파룬궁 서적과 영상 자료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공은 파룬궁 서적을 대량으로 불살라 버리고 인터넷을 봉쇄해 사람들이 사실 진상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분신자살 사기극에는 허점이 뚜렷하다

1. 천안문 경찰은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분신자살’ 점화 1분도 안 돼 어디서 이렇게 많은 소화기가 왔을까?
2. ‘분신자살’ 영상에는 먼 거리, 중거리, 가까운 거리 화면이 모두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촬영이다. 이것이 사전 배치 없이 가능하겠는가?

3. 왕진동(王进东)은 심한 화상을 입은 듯 보였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있었고,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스프라이트 병은 새것처럼 녹색이다.
4. 기관을 절개하면 소리를 낼 수 없다. 류쓰잉(刘思影)은 기관 절개 수술 받고도 마이크에 노래까지 부르는 것은 의학 상식에 어긋난다.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기

컴퓨터 PC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로는 위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사오니,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자유문] PC버전 안드로이드 버전